

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

- ◆ 모든 금융기관 대상 9월 시범 도입 및 내년 5~7월 전격 출시 전망
- ◆ 페드나우 도입으로 비용 절감 효과, 접근성 및 시스템 취약성 개선 기대
- ◆ 도입 성과 토대로 향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도입 향방 주목

I. 미국 연준 페드나우(FedNow) 개요

□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나우(FedNow) 개요 및 출시 전망

-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시결제플랫폼 페드나우(FedNow) 출시 발표
-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결제플랫폼 '페드나우'를 올 9월부터 시범 도입, 2023년 여름경 5~7월 정식 출시 전망 보도

※ 페드나우(FedNow)란?
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추진하는 연중 이용 가능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
 - 입금 이체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급 요청 서비스, 계정 정보를 유지·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, 사기 예방 등의 부가서비스도 포함
 - 페드나우는 디지털 통화로 자금이 확인되면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즉시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
 -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번 출시 성명 발표에서 “언제든 즉시 결제 가능한 기능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”이라며 “경제 전반에 걸쳐 일상적인 지불이 이뤄지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”이라고 언급
 - 이번 출시 발표는 모든 금융 기관에 개방되는 궁극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*의 예비단계로 US 은행(US Bank)와 알라크리티 페이먼트(Alacriti Payments) 등 120여개 기관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테스트 예정
- *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(CBDC))¹⁾

1)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central-bank-digital-currency.htm>

II. 페드나우(FedNow)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

□ 페드나우의 주요 기능과 특징

- 즉시 결제(instant payment)는 속도와 편의성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에 제약 없이 지불이 가능하고, 그로 인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²⁾
- 페드나우는 연준이 추진하는 실시간총액결제(RTGS)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해 지급 요청 서비스,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
- 실시간 지불은 값비싼 수표 현금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타 고비용 차용, 초과 대월이나 연체료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거나 최소화 가능
- 즉각적인 액세스와 청구서 지불을 즉시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단기 자금 조달을 모색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
- 페드나우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기존 구축된 시스템 외 부가 기능 및 서비스 개선 사항은 시범 도입 이후 구체화 예정
- 페드나우 서비스는 지불 무결성 및 데이터 보안을 지원하는 보안 기능과 함께 1년 365일(24x7x365) 신용 이체 처리를 중단 없이 유지하도록 설계
- 다양한 거래 유형 및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청산 및 결제 기능과 상호 운용성 지원을 위한 ISO 20022 표준 및 기타 업계 모범 사례 활용 예정
- 서비스 제공자, 통신원 및 수신전용 참가자 등록 옵션 등 유연한 채택 지원 기능과 기타 부가 가치 기능이 구현될 예정
- 결제 무결성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능과 거래 상한 금액 지정, 알림 기능 등 금융 기관 대상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 등 부가 기능 포함 예정

2) <https://www.frb services.org/financial-services/fednow/about.html#design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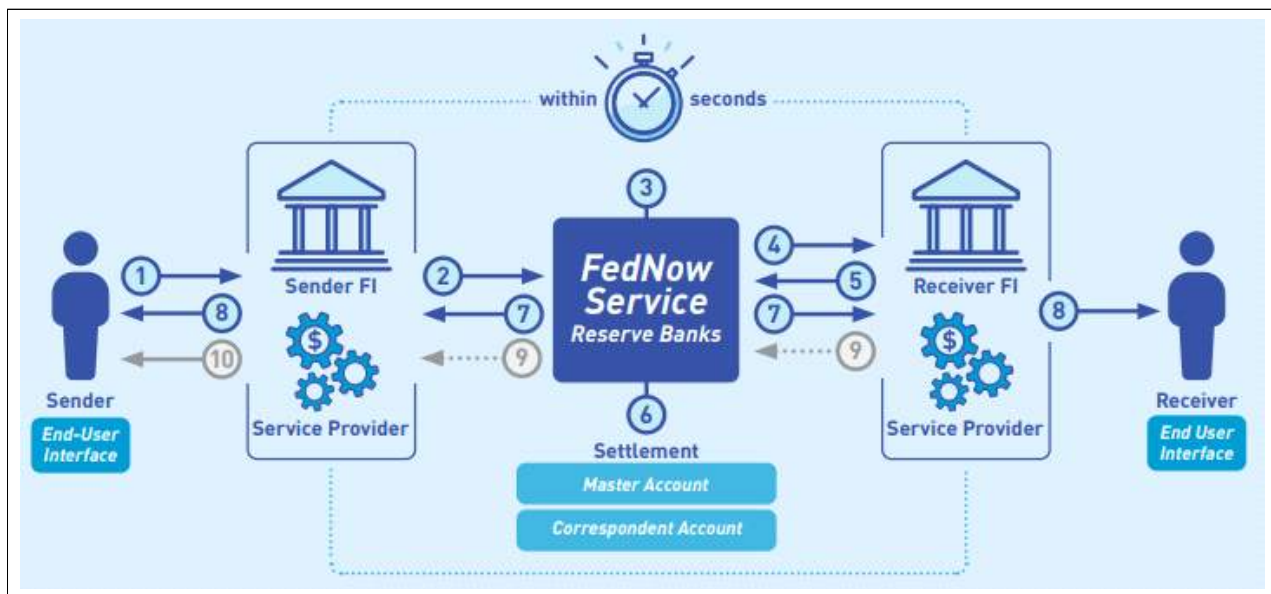
□ 페드나우 구동 원리 및 단계별 개요

○ 모든 금융기관(FI)의 고객이 즉시 송금 및 금액 수령 가능

- ① 송금인은 페드나우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불 → ② 페드나우 송금인 금융기관 지불 확인 → ③ 페드나우 서비스 지불메세지 검증 및 검토 → ④ 수신자 계정 유지 식별 → ⑤ 지불 메시지 수락 의사 확인 → ⑥ 발신인 및 수취인의 마스터 계정에 대한 정산 → ⑦ 송금 확인 및 지불 주문 → ⑧ 고객에 자금 가용성 알림

* ②-⑥단계까지 수행하는데 약 20초 안팎 소요

<페드나우 시스템 단계별 개요(Standard Payment Flow)>



[자료: 페드나우 홈페이지(FedNow-product-sheet)]

-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은 9월에 기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대부분 업체 유에스뱅크(US Bank)와 결제프로세서 알라크리티 페이먼트(Alacriti Payments) 등 120여개 기관이 참여 중
- 현재 미국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은 지난 2017년 대형은행들이 설립한 RTP (Real Time Payments) 공동망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결제기관인 TCH (The Clearing House)가 운영

* 씨티그룹, US뱅크, JP모건 등 미 대형은행이 총 10억 달러 투자

□ 페드나우의 도입 기대효과

- 연준은 페드나우가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며 도입 기대효과 발표
 - 더 많은 금융기관이 실시간총액결제(Real-time gross settlement) 방식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긍정적인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확대되고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* 지급결제서비스의 특성상 참가기관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
 - 브루킹스 연구소(Brookings Institution)의 선임 연구원인 애론 클라인(Aron Klein)은 페드나우 설립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연준이 초과 인출 수수료, 수표 현금화 수수료 등의 형태로 많은 연체료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
 - 다수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시장 참가로 경쟁이 촉진될 경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이용 편의성 및 속도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급 결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
- 연준은 중앙은행과 민간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복수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시스템에 따른 문제가 완화되고 시스템 안정성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
 - * 미국 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은 현재 RTP 공동망이 유일해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
 - 또한, 연준은 위기 시 결제유동성 제공 등 최종 금융 대출 역할을 통해 특정 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 - 수표 청산·결제시스템, FedACH 등을 운영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왔으며, 향후 RTGS 방식의 소액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페드나우 성과는 향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도입 향방에 영향을 끼칠 전망
 - * 디지털 화폐의 설계 원칙과 비용 및 이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³⁾

3)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, 8월 아칸소주 금융 컨퍼런스 발언

□ 미국 중앙은행 CBDC 연구 개발 및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 도입

- 미국 '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' 발표, '잠재적인 미국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노력'(22.3) 등 긴급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
- 백악관은 "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가 CBDC를 탐구하거나 시범 운영 중"이라며 "CBDC 발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CBDC 연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"고 발표하며 '디지털 달러' 개발에 속도

※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란?

-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지급결제 수행
-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낮음.
- 도입 시 기업과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한편 새로운 금리 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이 예상
- 지역·국가 간 기술적, 법률적 격차는 해결해야할 점으로 지목

- 연준은 대형 상업은행 중심의 민간 청산·결제기관인 TCH (The Clearing House)가 '17.11월부터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P 공동망(Real-Time Payments Network)을 운영 중
- 미국 외에도 스웨덴, 멕시코, 호주,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이 최근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

<RTP 공동망과 FedNow 비교>

	RTP 공동망	FedNow
■ 도입 시기	2017년 11월	2023년 여름(예정)
■ 참가기관	대형 상업은행 21개사	전체 예금취급기관
■ 청산·결제 방식	연준에 개설한 공동계좌의 사전예치금을 통한 실시간총액결제(RTGS)	연준에 예치한 참가기관별 지급준비금을 통한 실시간총액결제(RTGS)
■ 제공 서비스	입금이체, 지불요청 등	입금이체 등 (미정)

[자료: 한국은행 금융결제국]

Ⅲ. 현지 반응 및 시사점

□ 현지 반응 및 시사점

- 연준의 페드나우 서비스 도입 시,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 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즉시 지불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뿐 아니라 이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또한 개선 될 것으로 기대
- 페드나우 서비스 임원인 켄 몽고메리(Ken Montgomery)는 “즉시결제 이점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금융 기관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”이라고 강조
- 최근 즉시결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 제공 능력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9월 시범 운영 및 '23년 5~7월 출시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
- 아울러 페드나우 성과는 향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으로 이후 디지털 달러 도입의 연장선에서 검토 필요

[자료원] 미 연방준비은행 보도자료 및 페드나우 서비스 홈페이지, WSJ, Bloomberg 등 현지 언론 보도 자료,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보도자료 및 KOTRA 무역관 보유자료 /끝/